

1980년 이후 가정관리 분야에서의 가족연구 고찰*

Studies on Famology in Home Management Since 1980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혜 숙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 : Kim, Hye Sook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성과와 반성 |
| II. 분석대상 논문과 주제분류 | 참고문헌 |
| III. 지난 20년간의 가족연구 분석 | |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various articles on famology presented in home journals 1980. The articles show rapid growth in quantity and variety of subjects, and also show high quality of research analysis methods. However, only 13.5% of the articles contribute to social problems.

This study claims that various arguments and analyses should be made concerning the prospect of Korean families and the family functions. Educational programs must be made for healthy families and solving family problems, and for counseling and therapy. And scholars should take a role in central or local government committees to shape policies for family welfare. They should also go into the local societies for practicing their studies.

I.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에서 가정관리학은 1965년경부터 독립된 학과가 생기기 시작한 후 1977년에는 가정관리학 연

구회가 결성되었다. 한국가정관리학회는 1978년에 발족되었으며, 학회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는 1983년에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그간 가정관리학은 아동, 가족, 소비자, 가정자원관리, 주거 등으로 영역을 세

* 이 논문은 한국가정관리학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수정·보완후 사독을 거쳤음.

분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가족연구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그 동안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주제가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화해지면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차츰 수준 높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연구에서 실천 영역에의 요구 또한 증가되어 가족학 연구자들은 1993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를 설립, 사회봉사에 직접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가정관리학회지」가 창간된 이래 2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정관리학이 과연 실천학문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정관리 분야 중 가족연구를 대상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연구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동 과정에서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문제는 높은 이혼율, 증가추세의 미혼모, 가족유기 현상, 가족폭력, 노인문제, 가정교육의 부재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학 전공자들이 연구를 통해 과연 이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실천적인 면에서의 참여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사회적 공헌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족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등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1999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정관리 분야 학회지에 발표된 가족학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주제별, 시기별 고찰을 통해 가족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여 체계화를 시도하고,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난 20년간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 연구자들이 실제적 적용이 가능한 연구를 어느 정도, 어떻게 수행했는지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된 논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가족 연구의 사회적 환원 즉 실천적 기여에 있어서 분석대상이 된 학회지를 비롯한 개별논문들이 행정기관이나 사

회단체 등에서 과연 어느 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나 이곳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나아가 연구논문뿐만이 아니라 가족학 연구자들의 사회적 참여 내지는 공헌도 또한 그 공과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학회단체, 학자들, 연구물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점이 이 글의 한계이다.

II. 분석대상 논문과 주제분류

분석대상 학회지는 가정관리학에서의 가족분야 연구 추이를 살펴는데 연구목적이 있으므로 가정관리학 분야의 전공자들에 의해 수행된 가족연구들이 게재되는 학회지를 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가족학회의 학회지인 「가족과 문화」 등은 제외하고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 타 전공분야의 가족연구자들이 거의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를 선정하였다.

지난 20년간의 분석기간에 해당되는 논문은 한국가정관리학회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가 1983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다. 창간호에서부터 제17권 2호 까지 총 42권으로, 분석된 가족논문은 204편이다. 대한가정학회의 「대한가정학회지」는 1980년 1월부터 1999년 9월까지다. 18권 1호부터 37권 9호까지로 총 138권이며, 가족논문은 264편이다. 1996년에 창간호를 낸 한국가족관계학회의 「한국가족관계학회지」는 1999년 제 4권 1호까지 총 5권이며 논문은 58편이다. 지난 20년간 세 학회지에 게재된 가족논문은 총 505편이 되는 셈이다.

분석대상의 논문을 선정하는데 있어 문제가 된 것은 가족분야에 대한 논문의 성격이다. 가족분야의 논문은 아동이나 관리 분야와 상당부분 중첩되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 논문들은 아동분야인지 가족분야인지 또는 관리분야에 포함시켜야 할지 아니면 가족분야인지에 대한 판정이 상당히 모호하다. 양적 분류에서 고심을 했으나 기계적인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소 폭넓은 선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족분야의 505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정연·유영주(1990)는 연구업적을 크

게 “결혼 및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구조, 가족문제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다시 작은 주제별로 세분하였으며 그밖에 가족연구 경향, 성 역할, 기타 등의 영역을 포함”시켰다. 공식적으로 가족학에 대한 학문분류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정연·유영주(1990)의 분류를 따르면서 이곳에서는 1990년대에 와서 연구가 활발해진 가족생활교육·복지를 추가하여 5분야로 분류했다. 가족사 등 중요한 주제라 하더라도 논문편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결과가 어느 만큼 사회로 환원되었는가 하는 실천 기여 가족논문 역시 게재된 논문들의 성향별로 주제를 묶어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가족상담과 치료, 척도개발, 가족문제와 대책, 가족복지와 정책으로 나누었다. 필자의 주관적 시각보다 이미 발표된 연구주제의 경향을 중심으로 분류했을 때 그간의 연구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논문이 학회지 별 발표비율이나 연구성향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연구자들이 편의에 따라 각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있는 것으로 학회지의 성격이 크게 차별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지난 20년간의 가족연구 분석

1. 주제별, 시기별 연구경향

한국가족 연구에 대한 고찰은 최재석(1976), 한남제(1984), 조은(1986), 이정연·유영주(1990), 유영주(1991)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재석과 한남제는 주로 사회학 분야의 가족논문을 분석하였다. 이정연·유영주는 1960년 이후부터 1989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에 관한 논문들을 총망라하여 1191편을 분석한 바 있다.

1980년 이후부터 1999년 10월 현재까지 연구대상이 된 세 학회지를 분석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발표된 논문은 주제별, 시기별로 분류하였으며, 어느 시기에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가를 보기 위해 편의상 5년 단위로 살펴보았다. 이 단위로 보면 상당한 폭으로 양적 증가를 보여 매 기간마

다 두 배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1994년까지 15년 동안에 209편인데 비해 1995년부터 1999년 10월 현재 5년 사이에도 296편이나 되고 있다. 이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양적 증가, 연구인력의 증가, 컴퓨터의 생활화로 논문작성 기간이 과거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것 또는 각 대학마다 교수연구업적 평가제도의 실시 등에 힘입은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주제별로는 가족관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168편, 33.3%) 역시 전통적 주제가 강세임을 알 수 있다. 결혼·가족가치관(110편, 21.8%), 가족문제(71편, 14.0%)와 가족구조(70편, 14.0%)가 거의 같은 분포이다. 가족생활교육·복지는 59편(11.7%)이다. 이정연·유영주(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관계(46.0%), 가족구조(24.4%), 가족문제(11.8%), 결혼 및 가족가치관(9.8%) 순으로, 1990년을 전후로 연구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는 가족관계가 1순위가 아닌 하나 그 비율은 낮다. 또한 결혼·가족가치관, 가족문제의 점유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족생활교육 분야는 새로운 연구주제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해진 반면 가족역할,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 스트레스가 관심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가정관리학 분야에서의 가족 전공자들에 의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즉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의 타 분야와 가정관리학의 연구성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정관리학 분야에서의 가족 연구자들이 보다 실천적인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하는 연구대상 논문이 1900년대 이후에 엄청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별 가족연구의 전개과정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80~1984년

이 시기는 「대한가정학회지」만 발간되다가 1983년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의 창간으로 가족연구자들

〈표 1〉 연구 주제별, 시기별 가족분야 논문

연구주제별		시기별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계
결혼· 가족가치관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1	0	7	15	23	
	결혼 만족도	3	12	9	20	44	
	가족 가치관	3	7	5	28	43	
	소 계	7	19	21	63	110	
가족관계	부부 관계	3	9	12	14	38	
	부모-자녀 관계	1	4	3	20	28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1	3	6	18	28	
	형제자매 관계	0	0	1	0	1	
	조부모 손자녀 관계	0	1	1	3	5	
	장노년기 적응	4	7	13	32	56	
	전반적 가족관계	2	1	1	8	12	
소 계	11	25	37	95	168		
가족구조	친족, 사회망	1	0	3	3	7	
	가족 유형	0	0	1	2	3	
	가족 역할	2	1	9	18	30	
	가족기능, 응집과 적응	0	0	9	19	28	
	가족 주기	1	0	1	0	2	
소 계	4	1	23	42	70		
가족문제	가족 갈등	0	1	6	10	17	
	가족폭력, 학대	0	3	2	10	15	
	이혼	1	1	1	3	6	
	스트레스	1	2	9	21	33	
소 계	2	7	18	44	71		
가족생활 교육·복지	가족생활 교육	0	0	9	33	42	
	가족상담, 치료	1	0	3	5	9	
	가족복지, 정책	0	0	3	5	8	
소 계	1	0	15	43	59		
가족연구 경향	가족연구 경향	1	0	5	2	8	
	성 역할	4	2	3	1	10	
	기타	0	1	2	6	9	
	소 계	5	3	10	9	27	
전체 합계		30	55	124	296	505	

에게 발표의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결혼·가족가치관 분야 7편, 가족관계 11편, 가족구조 4편, 가족문제 2편, 가족생활교육·복지 1편, 가족연구경향 1편, 성 역할 4편으로 총 30편이 발표되었다. 가족관계 분야가 가장 많고 결혼·가족가치관이 그 다음으로 가족학에서 주된 연구 주

제로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노년기 적응과 성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노년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노인생활(김태현 1980), 노화도(홍미표 1980), 노인생활만족도(김명자 1982), 노년기 적응유형(김경신 1983) 등 노인연구가 지속된 시기이다. 특히 가족연구 경

향에 분류된 노년학 업적(김태현 1980)을 통해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성 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를 연계한 논문(박태은 1983 ; 최규련 1984) 등 성 역할 부문도 부각되고 있다.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것은 가족치료 이론(정애량 1983) 등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척이 돋보인다.

2) 1985~1989년

이 시기는 전기에 비해 전체적인 논문의 양적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총 55편으로 1980년대 전기에 비해 약 1.8배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결혼·가족가치관 19편, 가족관계 25편, 가족구조 1편, 가족문제 7편이다.

가족구조와 가족생활교육 영역에서는 미흡하나 결혼·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문제 연구에서 두드러진 발전이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결혼만족도와 더불어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확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부부에게로 전이되고 부부간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가족관계, 결혼·가족가치관에 비해서 논문 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부부의 갈등해결 표출방법으로 폭력행동(김정옥 1985), 부부권력과 폭력(전춘애 1989), 가정폭력(김정옥 1988) 등 가족폭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김양희·전세경 1989), 부부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최동숙 1989)를 다룬 논문들이 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박영옥·한상순 1987)과 이혼태도(박찬미·서병숙 1987) 등 가족의 갈등과 제반문제에 대한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가족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학 연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 하게된 증거라 여겨진다.

3) 1990~1994년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1980년대에 비해 가족 연구의 양적 증가는 더욱 두드러져 이 시기에 총 1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 후반기에 비해 무려 2.2배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 결혼·가족가치관

21편, 가족관계 37편, 가족구조 23편, 가족문제 18편, 가족생활교육·복지 15편이다.

여전히 가족관계가 우세한 가운데 결혼·가족가치관은 별 증가가 없다. 그러나 결혼·가족가치관 영역의 소 주제에서 결혼만족도와 가족가치관은 다소 감소현상을 보이는 반면, 1980년대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예를 들면 김혜선·김명자 1992 ; 김혜선·성미애 1993 ; 김예정·김득성 1993 ; 이경애·조병은 1994)에서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혼이 개인의 선택으로 자리잡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성교제나 배우자 선택문제에 대해 어떤 사회적 규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에서는 여전히 장노년기 적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들에서 가족구조, 가족문제, 가족생활교육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가족구조 영역에서는 가족역할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가족기능, 응집과 적응 영역의 출현에 따른 것이다. 가족의 역할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맞벌이 가족의 역할 긴장(김영희·Elizabeth B Goldsmith 1992 6·9), 배우자 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서광희·조병은 1993), 부모역할(양명숙 1993 ; 유안진·신양재 1993 ; 조복희·현은강 1994 ; 진미정·옥선화 1994), 부양자 역할의식(배희분·옥선화 ; 1993) 등 다양하다.

가족기능과 응집·적응에는 응집력과 적응력(예를 들면 김순옥 1990 ; 전귀연·최보가 1993 ; 김수연·김득성 1993, 1994 ; 안선영 1994), 가족문제 영역에서 가족갈등(예를 들면 이영숙 1990 ; 송말희 1990 ; 김갑숙·최외선 1992 ; 정혜정·서병숙 1993), 스트레스와 대처(김태현·강인 1990 ; 최정혜 1990 ; 김명자 1991 ; 고은숙·김명자 1993 ; 이신숙·서병숙 1993, 1994 10, 1994 12 ; 고정자 1994 ; 김오남·김경신 1994)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점은 이정연·유영주(1990)의 연구 당시까지만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새롭게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도 전 시기에서 부부관계 연구가 중시되기 시작한 것과 동행으로 보인다. 가족문제가 사회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데서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가족갈등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이전 시기에 비하면 증폭하고 있다. 특히 가족생활교육과 복지 분야도 눈에여볼 만하다. 세부적으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가족상담과 더불어 가족복지·정책에도 관심이 서서히 증대되기 시작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 분야에서는 유영주·오윤자(1990), 오윤자(1992)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I),(II)를 발표함으로써 가족생활교육의 발전에 선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4) 1995~1999년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미 가족연구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후기에 와서는 폭발적인 급성장을 보여 무려 296편으로 전기에 비해 2.5배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 전반기에 비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양적 성장을 나타낸다. 이는 각 학회지 별로 학회지의 연간 출간 횟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에 「한국가족관계학회지」가 창간되었으며, 사회전 분야에서 개혁이 요구되면서 교수의 활발한 연구업적도 요청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족가치관, 부모자녀관계, 가족폭력, 가족생활교육에서 높은 비율의 성장을 볼 수 있다. 가족가치관에서는 5.6배의 증가가 있었다. 예를 들면 효도관(김명자·안선영 1996)·결혼관(양명숙 1996)·재혼관(김은진·조단경 1997)과 전반적 가족가치관(김경신 1998 ; 강완숙 1998 ; 이은경 1999 ; 한경순 1999 ; 최정혜 1999 ; 김경신 1998 ; 조미숙·오선주 1999)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최선남·최외선 1995 ; 이항순·유안진 1996 ; 김일명·이정덕 1996 ; 최외선·백양희·이미옥 1997 ; 이승미·이기영 1998 ; 유계숙 1998 ; 최규련 1998 ; 백양희·권은주 1999)와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육경희 1996 ; 배선희 1997 ; 김양숙·김태현 1997 ; 서소영 1998 ; 홍달아기 ; 1998)의 연구도 많아졌다.

가족문제 영역에서 여전히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성교제 중 폭력(이영숙 1998 ; 김정란·김경신 1999 ; 김용미 1996, 1999)을 포함

한 부부폭력과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 자녀의 부모폭력 등 가족폭력(정서영·김명자 1996 ; 손정영·유영주 1998 ; 한경혜·김영희 1999 ; 김재엽·이서원 1999 ; 전희정·이영숙 1999)에 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났다.

가족생활교육에서는 '가족생활교육' 교과과정 평가 및 개발(옥선화 1997)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5) 전반적 가족연구의 경향

신화용(1996)은 1980년 이후의 노년기가족 연구가 여전히 탐색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정한 이론의 적용을 시도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이 노년기 가족연구에 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분석된 논문들도 특정이론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론적 틀이 없는 기술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문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탐구와 검증, 나아가서는 연구들에 대한 쟁점(예를 들면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의 김혜숙의 4인, 1999)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설문지 조사에 의한 경험적, 실증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참여관찰법이나 심층면접법, 사례분석 등의 질적 자료 수집에 바탕을 둔 다양한 연구방법의 응용이 요구된다. 자료의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컴퓨터의 일반화로 여러 통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평균, 표준편차, 빈도수, %, 상관계수, chisquare, t-test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연구모형에 따라 회귀분석, 경로분석, 변량분석, 사후검증, 요인분석 등 고급통계 방법도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통계처리 결과에 의존함으로써 보다 큰 흐름을 놓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년간의 가족연구에 있어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그 전 시기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축적하였다. 주제별로는 가족관계, 결혼·가족가치관 영역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1900년대 이후에 장노년기 적용, 가족생활교육, 스트레스, 가족폭력이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 관심 영역이 확장되어 가족문제 해결에 대해 가족학자들

이 실천적 연구 주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문제의 예방과 대책에 보다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 가족의 문제가 사회화되는 일면이라 여겨진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도시중심에서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편부모가족, 저소득층가족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좀더 밀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가족복지와 정책, 가족상담과 치료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가족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 특히 가족문제와 정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 제반 가족정책의 반영, 복지체계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히 IMF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 시대 실천학문으로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가족학 연구자들은 어떤 준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1999년도에 들어와 대한가정학회의 “생활과학전공자의 사회진출과 사회적 기여”,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실천학문으로써 가정관리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 등의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학회 차원의 노력이라 여겨진다.

2.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

가정관리학에서의 가족연구는 실천학문으로써 연구 성과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학문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본래의 사명을 다 하는 일일 것이다. 즉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은 현대사회가 가족연구자들에게 요망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이라고 보아진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천적 연구성으로 판단하였다.)

- (1) 연구성과가 일반가정에 적절한 정보, 조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2) 가족이 주요대상인 국가정책과 기업활동에 있어 연구결과의 반영 여부

- (3) 실천적 연구에 직접적인 자료의 제공 효과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학문영역마다 비슷하겠지만 가족학에서도 이론, 경험적 연구 또는 실천 가능성의 중요성은 어느 쪽이 더하고 덜하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이론이나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것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초점이 어디까지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이므로 연구성과의 실용성이나 효과, 각 연구가 사회적 실천에 구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로운 연구였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다. 나아가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었는가, 관련기관에서 가정관리학 분야의 학회지를 정보지로 활용하는가, 가족연구가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되는가 등의 문제도 살펴야 할 것이나 외부에서의 검증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가족분야의 논문 중 실천적인 면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논문은 총 68편으로 다음 <표 2>와 같다. 학회지 별로는 「대한가정학회지」 36편(연평균 1.9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편(연평균 1.4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편(연평균 2편)이다.

이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반적 가족연구의 증가와 같은 현상을 보인다. 특별히 실천적 영역에서의 증가라고 하기보다는 가족연구의 전반적 추세와 맞물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1980년에서 1993년까지 14년 동안에는 7편(10%)에 불과하나 1994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양적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발표된 논문들을 연구주제별로 보면 가족생활교육 분야가 34편(50%)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로는 프로그램 작성에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척도개발이 12편이고, 가족문제와 대책이 8편, 가족복지와 정책 5편, 가족상담과 치료 2편, 기타 7편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1993년 이전의 연구가 양적으로 열세하여 시기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 주제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6차 학술대회(1999. 11. 13)에서는 발표자들이 실천적 연구의 기준을 연구결과의 사회화에 있다고 보고 연구성과가 일반가정, 기업, 국가에 전달 및 반영되는 것을 실천적 연구로 판단하였다.

〈표 2〉 연구 주제별, 연도별 실천 기여 가족논문

주제별	연도별	1993이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결혼준비 교육				1	1			2
	부부 교육		2		1	1	1	1	6
	부모 교육			1	1	1	4		7
	부모자녀관계 향상					1			1
	고부관계 향상				2				2
	노인 부양		1	2	1				4
	노인 교육				1				1
	편 부모					1		1	2
	맞벌이 가족					1	1		2
	가정 폭력							1	1
	청소년						1		1
	치매 노인				1				1
	전반적 가족생활교육	1				1	2		4
	가족상담, 치료			1		1			2
	척도개발	3		2		3	3	1	12
	가족문제·대책		1	1	4		1	1	8
	가족복지·정책	1	2			1		1	5
	기 타	1		1	1		3	1	7
	계	6	6	8	13	12	16	7	68

1)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가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이다. 가족생활교육사 2급, 1급, 전문가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된 기간이 겨우 몇 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는 일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는 전무한 실정이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 학회지에 나타난 최초의 논문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유영주·오운자 1990)로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후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표 2〉에서 보듯

이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향상, 고부관계 향상, 노인부양, 노인교육, 편부모, 맞벌이가족, 가정폭력, 청소년, 전반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도 개발(김지신·정승원·최미경 1997; 고선주·조은숙·옥선화; 1998)되었다.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조사한 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한국 부모에게 적합한지 그 적용성 평가(연미희·조복희 1995)도 시도되었다. 부모교육에 있어서도 청소년기(유은희 1996; 송정아·윤명선 1997)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 관계향상 프로그램

모형개발을 위해 부모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실시방법과 평가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실험 분석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유은희·홍숙자(1998)는 외국의 부모교육 이론을 참조하면서 우리 나라 가족 특성이 반영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평가를 교육 종료 후 바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어느 만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인 HALS(Hypermedia-Aided Learning System)도 제안(고선주·옥선화·최중민·홍준희 1998)되어 최근 가족생활교육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하이퍼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교육 시스템을 가족생활교육에 도입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이버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점에서, 실험적 수준이기는 하나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임을 고려할 때 발전적인 시도로 보인다.

결혼준비교육(정민자 1996 ; 박미경·김득성 1997)과, 부부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혼초기 부부(최혜경·노치영·박의순 1994), 부부관계 향상(오윤자·유영주 1994 ; 송정아 1996)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나 부모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가 시행되지 않거나,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 평가분석을 하였다. 부부교육에 있어서도 구체적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었는데 Miller등이 개발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최규련 1997), 외국의 부부 치료모델을 기초로 한 부부갈등 해결(이창숙·유영주 1998)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평가하여 유효 프로그램임을 보고하였다. 이경희·옥선화(1999)는 부부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시안을 발표하였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와 평가방법 제시에 그치고 직접적인 실험분석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노인부양교육과 노인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행되었다. 1994-1996년 사이에 5편이나 그 전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인부양가족의 교육요구

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 개발하였지만 평가는 시행하지 않은 연구(옥선화·이형실·임춘희 1994 ; 어성연·신상옥 1996),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 평가(홍숙자 1995 ; 홍숙자·이형실·전길양 1995)까지 실시한 연구 등 다양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어성연·신상옥 1996)도 개발되었다.

가족관계 향상으로는 부모자녀관계(송정아·윤명선 1997)와 중년기 주부(김명자·송말희 1998)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구되었다. 연령층에 따른 고부관계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중년 며느리(홍숙자·유은희·전길양 1996)를 위한 것과, 젊은 며느리(이정연·정혜정·장진경 1996)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교육내용은 직접 대상자들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방법과 평가방법은 제시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외국의 교육이론을 참조하면서 우리 나라 가족특성이 반영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실시하면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평가까지 시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가의 시기가 대부분 교육종료 직후 바로 실시하고 있어 교육의 효과가 어느 만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숙제이다.

그 외에도 특정가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어 가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노력을 보여준다. 치매노인 가족(김태현·전길양 1996), 편부모가족(김경신 1997 ; 1999), 맞벌이 가족(예창명·김명자 1997 ; 조은숙·고선주·옥선화 1998), 가정폭력(최규련·유은희·홍숙자·정혜정 1999)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 약물남용 재활 교육프로그램(장진경 1998) 등이 있다. 단순한 실태조사의 수준을 넘어 경험자들에게 약물남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행정기관에서의 가족생활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제시(김경신 1996)한 연구는 가족학자들이 행정적인 측면에도 일부나마 공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가족상담과 치료연구

가족생활교육 분야의 연구가 활발한 반면 가족상담과 치료는 2편에 불과하다. 한국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족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손정영 1997)을 통해 가족이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가족복지정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린 정책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 방안제시를 하고 있다. 또 한편은 전화상담 사례를 통해 부부갈등 문제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이미연·박혜인 1995)인데 엄격히 말해 가족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유일한 상담관련 논문이다.

가족상담이 부분적으로는 관련학자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실천적 연구논문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생활교육사와 같은 시기에 가족상담사 자격증 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으나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가족상담이 뿌리내리기가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교육보다는 상담과 치료가 보다 더 전문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 분야에서 실천적 논문 제출이 적은 것은 시행기간이 짧은 점이 보다 큰 이유일 수도 있다. 시행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배출되고 있는 가족상담사들의 경력이나 연령의 문제이기도한데, 미혼인 여성상담자가 남성 내담자들의 성 문제를 상담해야 한다거나, 젊은 상담자가 중년가족에 대한 상담에는 내담자의 편견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가족상담가로서의 활동은 학문연구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서 임상경험 등 또 다른 노력을 요하는 힘든 작업이다. 이에 대한 교과과정의 개발과 학회차원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3)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물론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가족상담 등 실천영역에서 요구되는 각종 측정도구는 객관적 연구활동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된다. 척도개발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방법론상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한국가족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한 연구(결혼만족도 척도, 1989;

손정영, 갈등대처유형척도, 1997;), 두 번째는 외국의 척도를 기초로 우리 나라 가족에 맞게 개발한 연구(김수연·김득성, 가족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 1997; 정현숙, 결혼만족도 척도, 1997; 최희진·유영주, 가족 기능도 척도, 1999)가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인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고 문항 양호도,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가족주의 척도, 1986; 장하경·서병숙, 성 역할 정체감 척도, 1991; 어은주·유영주, 가족 건강도 척도, 1995; 이경희, 부부간 친밀감 척도, 1995; 박정희,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 1998; 백지숙·도현심·박성연, 청소년후기개체화 척도, 1998; 정문자·이미리, 저소득층 주부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 1998)이다.

그간의 연구 성향을 볼 때 주로 외국의 검사도구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던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직접 실증적 조사를 토대로 한국 가족의 문화에 맞는 척도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4) 가족문제·대책, 가족복지·정책 연구

가족문제와 그 대책에 관해서는 8편으로 알콜중독자 자녀들의 적응(장진경, 1994), 미혼모 발생요인과 예방대책(손홍숙, 1995), 청소년문제와 대책(최규련, 1996), 청년기 자녀 갈등(이정숙·김유광·서병숙, 1996), 부부문제해결(노치영·최혜경, 1996), 부부간 폭력대책(최규련, 1996), 재혼가족(1998), 혼수관행문제(조희선·류미현, 1999)에 관한 것이다. 청년기 자녀의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극을 통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종래의 연구방법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가족복지와 정책은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딸별이가족 정책(김양희외, 1992),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가족복지 대책(박혜인, 1994), 교육열과 대학입시: 가족적 대책(김경신외, 1994), 농가부부 가족복지 대책(한경미, 1997), 노인복지(김경신·신효식·한경미, 1999)가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복지대책, 정책 제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거나 막연한 대책으로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복지 대책이나 정책적 연구가 과연 어느

만큼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는지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연구의 사회화를 위해 학회차원에서 활발한 학회홍보도 필요하다.

5) 실천적 가족연구의 경향

실천적 영역에서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가족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학 연구자들에 의해 대형강의 위주의 형태에서 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일반교양 수준의 교육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의나 우리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간의 기본적인 동의 없이 각 연구자의 이론적 주장에 의해 개념이 정의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정현숙 1998). 뿐만 아니라 효과검증이 시행되지 않은 제안수준의 프로그램도 많으며 시행되더라도 평가의 시기가 교육직후, 2주일 후, 1개월 후 등이다.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연구와 시행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제안되거나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짧은 교육시간에 과다한 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소화해 내기에 어렵거나 또는 지나치게 강의위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외국의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던 초창기와는 달리 한국가족문화에 걸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나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듯 하다.

문제가족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예방이 물론 중요하나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상담에 관련한 실천적 영역에서의 논문은 극히 희소한 실정이다. 가족문제에 대한 연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가족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학자들의 현실참여 또한 중요한 일이다. 연

구결과의 사회환원을 위해 실천영역에서의 적극적 개입도 실용학문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편중되어 연구성과의 사회화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IV. 성과와 반성

지난 20년간의 전반적인 가족연구 경향을 볼 때 1980년대의 전기와 후기사이에는 완만한 발전을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연구주체의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다. 특히 1995년을 전후로 양적으로 급성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연구주체가 다양해지고 연구방법과 분석방법에서도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론적 연구주체에서 장노년기 적용, 가족역할,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문제, 가족생활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을 고비로 가족생활교육은 비약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가족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반면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을 살피기 위해 실천적인 기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논문은 전체의 13.5%에 불과하다. 이는 곧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간의 연구가 가족문제의 해결에 어느 만큼의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실천적 연구주체별로 보았을 때 가족상담과 치료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여 이 분야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구주체의 절반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짧은 발전기간으로 볼 때 종합적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나 가족전문자들이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의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형편이다. 최근 직접 대상자들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문화배경을 고려한 한국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가족문제와 대책, 가족복지와 정책분야의 실천적 논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최근의 일로서 뒤늦은 감이 있다. 그만큼 현실문제에 안이한 자세를 취해온 결과일 것이다.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독자적 이론과 방법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일부의 노력이 있기는 하나, 서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실천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적 상황과 한국인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한 철학과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연구의 쟁점에 대한 논쟁 등의 활성화를 통해 비판과 더불어 대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문제의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과 치료에 관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의 연구가 미진한 것은 참여자의 절대부족에도 원인이 있으며 몇몇 연구자들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있다. 분석된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실천영역 논문 발표자들의 이름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어 보다 많은 가족연구자들이 실천적 주제부문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실천학문으로서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상담사 등의 배출은 의미 있는 업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의 가정관리 관련 학과에서 이와 같은 자격증을 받고 사회로 진출한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과과정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자격증 배출에 따른 자격요건 등에 대해 타 전공분야의 부정적 비판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가족관계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회와 연구소, 각 대학의 학과 실습실과의 연계 등에도 주력해야 되리라 본다.

지역사회내의 대중 속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여 연구영역을 확산시켜야 함은 물론 지역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자리 매김 하는 것도 필수적 과제이다. 현

장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한편 가족상담소 등을 개설해 나가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자격증이 수여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사와 가족상담사들에 대한 지역사회내의 일터 제공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가족연구자들이 중앙정부의 부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반영에 실질적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참여부족뿐만이 아니라 홍보의 문제도 제기되며,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업적이라 해도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 학회지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실천학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다. 연구의 결과들을 복지체계나 정책에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을 학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킴으로서 학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론 또는 실증적 연구에 따르는 문제제기 혹은 제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훌륭한 연구라 하더라도 기초자료의 수준에만 머무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책이나 제안이 상식적이거나 막연한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연구의 성과가 국가정책 등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섯째, IMF 체제 이후의 가족 변화와 대책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이는 가족학 분야가 발빠르게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변동에 대한 예측과 현실 직시를 통해 가족문제의 예방, 대안제시와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최재석(1976). 해방 30년의 한국사회학, 가족분야. 한국사회학 10.
- 홍두승(1984). 가정학연구의 방법론적 과제.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4호.
- 조 은(1984). 한남제의 '가족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18집.

- 한남제(1984). 가족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18집.
- 조 은(1986). 가족사회학의 새로운 연구동향과 이론적 쟁점. 한국사회학 20.
- 김순옥(1989). 한국의 가족의사소통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 대한가정학회(편)(1990).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Ⅱ. 서울 : 신광출판사.
- 이정연·유영주(1990). 가족연구의 역사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제1호.
- 최규련(1990). 한국에서의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고찰. 수원대지역사회개발 1.
- 유영주(1991). 가족학 연구의 역사.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 서울 : 교문사.
- 고정자·김갑숙(1993). 고부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1호.

- 박민자(1993). 사회학에서의 가족연구. 가족학논집 5. 한국가족학회.
- 신화용(1996). 1980년 이후의 노년기 가족 연구 ; 성과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 이동원·함인희(1996). 가족사회학 연구동향. 가족과 문화 제1집, 한국가족·문화학회.
- 정현숙(1998).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가족향상 프로그램의 고찰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4호.
- 김혜숙·김은희·김항원·유철인·장현섭(1999). 한국 가족/친족 연구의 쟁점 ; 도시 중산층과 제주도의 가족/친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 11집 1호. 한국가족학회.